<h1>나 혼자만 레벨업-6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d5f41bd926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1화</p>  
<p>그리고 하나 더.</p>  
<p>진우가 숲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.</p>  
<p>'상태창.'</p>  
<p>[이름: 성진우]</p>  
<p>[레벨: 51]</p>  
<p>[직업: 그림자 군주]</p>  
<p>[칭호: 역경을 이겨 낸 자 (외 1)]</p>  
<p>티 나지 않게 상태창을 불러낸 진우가 칭호를 역경을 이겨 낸 자'에서 '늑대 학살자'로 바꾸었다.</p>  
<p>[칭호: 늑대학살자 (외 1)]</p>  
<p>늑대를 잡는 데 능숙한 사냥꾼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. 짐승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모든 능력치가 40% 증가합니다.</p>  
<p>이런 사기적인 버프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?</p>  
<p>띠링.</p>  
<p>[짐승형 몬스터가 등장하였습니다.]</p>  
<p>[칭호 효과가 적용됩니다.]</p>  
<p>추가된 능력치를 확인한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헌터들이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"고, 곰이다!"</p>  
<p>"아이스 베어!"</p>  
<p>인간 냄새를 맡은 아이스 베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.</p>  
<p>영역을 침범한 적.</p>  
<p>아이스 베어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.</p>  
<p>그르르르-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얼음처럼 투명한 이빨을 드러내며 육중한 몸을 느릿하게 일으켰다.</p>  
<p>시야를 가려 버리는 몸집!</p>  
<p>"아..."</p>  
<p>북극곰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크기는 두 배에 가깝고, 가슴에는 마수의 상징인 마정석이 장식처럼 붙어 있었다.</p>  
<p>크어어엉!</p>  
<p>일대를 울리는 묵직한 포효!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진우를 제외한 헌터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.</p>  
<p>박희진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'뭐가 아이스 베어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야!'</p>  
<p>저 괴물을 두고 할 소린가, 그게!</p>  
<p>성진우의 유창한 언변에 그만 넘어갈 뻔했다.</p>  
<p>아이스 베어를 실제로 보자마자 확신이 섰다.</p>  
<p>'역시 숲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!'</p>  
<p>위기감을 느낀 박희진이 일행들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"제가 시선을 끌 테니 여러분들이 틈을 봐, 꺅!"</p>  
<p>강한 악력에 목덜미 옷깃이 당겨진 박희진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몇 걸음이나 뒷걸음질 쳐야 했다.</p>  
<p>간신히 균형을 잡고 보니 어느새 진우가 눈앞에 서 있었다.</p>  
<p>"뭐예요, 당신!"</p>  
<p>진우는 손가락으로 박희진을 가리켰다.</p>  
<p>"분명히 말해 두는데 앞으로 마수는 나 혼자서 잡습니다."</p>  
<p>경험치를 뺏길 순 없으니까.</p>  
<p>진우에게 이 곰탱이들은 진짜 적인 백귀들을 상대하기 위해 섭취해 둬야 할 좋은 영양제들이었다.</p>  
<p>"하?"</p>  
<p>박희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'지금 마수를 혼자 잡겠다고 날 잡아당겼단 말이야?'</p>  
<p>마법계열인 다른 헌터 두 사람도 캐스팅을 중단하고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해도 저놈은 상급 던전의 마수예요!"</p>  
<p>등 뒤에서 들리는 박희진의 뿔난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우는 아이스 베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.</p>  
<p>'단검을 쓰자니.'</p>  
<p>피가 튀어 엉망이 될 것 같고.</p>  
<p>진우는 습관적으로 소환한 단검 두 개를 다시 창고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'원래는 견학만 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은 위급 상황이니 이해해주겠지?'</p>  
<p>진우와 아이스 베어의 시선이 마주쳤다.</p>  
<p>크어!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전봇대 굵기만 한 팔을 번개처럼 휘둘렀다.</p>  
<p>쉬익-!</p>  
<p>하지만 허공을 갈랐다.</p>  
<p>'덩치고 큰 게 속도도 빠르네.'</p>  
<p>아이스 베어의 머리 위로 점프한 진우는 왜 놈의 악명이 자자한지 충분히 이해했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지금까지의 레벨업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고개를 들기 직전, 진우는 전력을 다해 놈의 이마를 주먹으로 내려쳤다.</p>  
<p>투쾅!</p>  
<p>아이스 베어의 대가리가 바닥에 처박혔다.</p>  
<p>두개골이 박살 나 버린 아이스 베어는 혀를 밖으로 길게 빼고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그렇지!</p>  
<p>안 그래도 레벨이 오를 때라고 예상했는데, 박희진을 말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"다... 당신, 정체가 뭐예요?"</p>  
<p>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서니 할 말을 잃은 네 사람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.</p>  
<p>진우가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이런 상황이 싫어서 미리 못 박아놨던 건데.'</p>  
<p>아무래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리 오래 유지되지가 않나 보다.</p>  
<p>어쩔 수 없이 진우는 한 번 더 강조했다.</p>  
<p>"질문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. 내 방식이 싫으면 저리로."</p>  
<p>진우의 손가락이 김철 팀이 있던 방향을 가리켰다.</p>  
<p>"다시 가시면 됩니다."</p>  
<p>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, 박희진의 표정이 돌아왔다.</p>  
<p>"방금 아이스 베어를 어떻게 잡는지 봤는데 제가 당신 주변을 떠날 거 같나요?"</p>  
<p>박희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.</p>  
<p>김철보다 나아 보여서 직감적으로 선택한 길이었는데, 그게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다.</p>  
<p>계산이 빠른 그녀는 바로 결론을 내렸다.</p>  
<p>여기서 무사히 나가려면 성진우를 따라야 한다고.</p>  
<p>혹시나 진우 입에서 그냥 각자 갈 길을 가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간절한 심정으로 선수를 쳤다.</p>  
<p>"진우 씨가 리더를 맡아 주세요.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를 테니까."</p>  
<p>'요구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...'</p>  
<p>잠깐 고민해 보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앞일을 생각하면 그게 여러모로 편할 듯했다.</p>  
<p>박희진은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한송이라는 학생은 어차피 진우가 데려왔으니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그러면 남은 사람은 두 명.</p>  
<p>"다른 두 분도 동의하시죠?"</p>  
<p>갑자기 시선을 받게 된 헌터 두 사람은 아이스 베어의 사체와 진우를 번갈아 보다가 곧 격렬히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다시 레드 게이트 앞.</p>  
<p>현기철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시계를 확인했다.</p>  
<p>백윤호가 물어 왔다.</p>  
<p>"얼마나 지났습니까?"</p>  
<p>"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"</p>  
<p>"3시간... 안에서는 벌써 3일이 흘러갔다는 얘깁니다."</p>  
<p>백윤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.</p>  
<p>여기 모인 네 사람 중에 오직 백윤호만이 레드 게이트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다.</p>  
<p>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급의 헌터 중 한 명, 백윤호.</p>  
<p>그런 그에게도 레드 게이트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.</p>  
<p>백윤호가 찹찹한 심정으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.</p>  
<p>"레드 게이트가 진짜 무서운 점은 거기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데에 있습니다."</p>  
<p>흔히 들을 수 없는 S급 헌터의 레드 게이트 경험담이었다. 당연히 안상민, 주성찬, 현기철 세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다.</p>  
<p>백윤호가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게이트를 넘어 도착한 곳이 60도가 넘는 사막 위일 수도 있고, 독사와 독충이 들끓는 정글 속일 수도 있고, 발끝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운 설원 위일 수도 있습니다."</p>  
<p>꿀꺽.</p>  
<p>세 사람은 동시에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"일단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가 레드 게이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니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"</p>  
<p>오늘도 그랬다.</p>  
<p>평범하게 보였던 게이트가 헌터들이 들어가고 나자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"태양빛에 살갗이 타들어 가고, 밤낮없이 독충에 시달리고, 살을 에는 추위에 피부가 썩고... 그렇게 약한 사람들부터 죽어 나갑니다."</p>  
<p>"맙소사..."</p>  
<p>현기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을 흘렸다.</p>  
<p>"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마수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."</p>  
<p>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암담한 분위기가 전해졌다.</p>  
<p>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.</p>  
<p>"간신히 도착한 곳의 환경에 적응했다고 칩시다. 그럼 이제부터는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."</p>  
<p>최소 몇 주, 길게는 몇 달 동안 먹을거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.</p>  
<p>보통 일이 아니었다.</p>  
<p>"혹독한 환경과 잦은 굶주림 속에서 믿을 건 마력나침반 하나뿐."</p>  
<p>강한 마력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마력나침반.</p>  
<p>마력나침반을 보고 보스를 찾아가 처치하는 게 던전 브레이크 외에 레드 게이트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.</p>  
<p>"그 바늘 하나만 보고 며칠, 몇 주, 몇 달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. 사람이 안 미치고 배기겠습니까?"</p>  
<p>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헌터가 아닌 자기들 같은 일반인이 그런 곳에 떨어진다면 마수가 아니더라도 단 하루를 버티지 못하리라.</p>  
<p>"아까 3일이 지났다고 했지요?"</p>  
<p>"네."</p>  
<p>현기철의 대답에 백윤호가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아마 지금쯤이면 C급 이하 헌터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."</p>  
<p>김철은 A급.</p>  
<p>실력이 좋다고 해도 A급 헌터로는 팀원 전부를 지키기가 불가능하다.</p>  
<p>최소한 S급 정도 되는 헌터가 그들 옆에 있다면 모를까.</p>  
<p>그러니.</p>  
<p>"이제는 상급 헌터들이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."</p>  
<p>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.</p>  
<p>백윤호의 머릿속에서 C급 이하 헌터들은 벌써 죽은 사람들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저녁 시간.</p>  
<p>모닥불 위에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 갔다.</p>  
<p>"곰 고기요, 좀 질기지만 먹을 만한데요?"</p>  
<p>"조금 더 드릴까요?"</p>  
<p>"아이고, 감사합니다."</p>  
<p>고명환은 윤기중이 내민 접시 위에 잘 익은 아이스 베어 고기를 쓱쓱 썰어서 얹어 주었다.</p>  
<p>진우 팀의 C급 헌터 두 사람이었다.</p>  
<p>박희진과 한송이도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오물오물 식사를 이어 나갔다.</p>  
<p>"언니, 저 후추 좀 주세요."</p>  
<p>"소금은?"</p>  
<p>"간은 괜찮아요."</p>  
<p>다들 어느 정도 던전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.</p>  
<p>모닥불에 모포에 천막까지.</p>  
<p>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.</p>  
<p>아니, 어떤 점에서는 아늑해 보이기까지 했다.</p>  
<p>고명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.</p>  
<p>"요즘 아이스 베어 습격이 좀 줄어든 거 같지 않아요?"</p>  
<p>박희진이 답했다.</p>  
<p>"그거야 공대장님이 씨를 말리셨으니까 그렇죠."</p>  
<p>"그분은 무슨 전생에 곰이랑 원수를 졌는지 아이스 베어만 보면 눈이 이글이글한다니까요. 그럴 때 공대장님을 보면 무서워요, 무서워."</p>  
<p>어느새 진우의 호칭은 공대장님이 되어 있었다.</p>  
<p>문득 진우의 공백을 느낀 박희진이 고개를 빼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"그러고 보니 공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?"</p>  
<p>접시에 얼굴을 파묻을 기세로 식사에 집중하고 있던 윤기중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아까 이 주위를 좀 돌아보겠다고 나가시던데요?"</p>  
<p>허.</p>  
<p>박희진이 못 말리겠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"혼자서 그렇게 상급 던전을 마음대로... 진짜 무섭지도 않나?"</p>  
<p>윤기중이 씩 웃었다.</p>  
<p>"그분은 괜찮지 않을까요?"</p>  
<p>"하긴, 상급 마수인 아이스 베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데."</p>  
<p>윤기중의 말을 고명환이 받았다.</p>  
<p>그리고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근데요... 말이 나와서 말인데...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마수를 무식하게 때려잡으려면 대체 랭크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하는 걸까요?"</p>  
<p>뚝.</p>  
<p>갑자기 모두들 말이 없어졌다.</p>  
<p>다들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다만 쫓겨나는 게 무서워서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지 못할 뿐.</p>  
<p>"...밥이나 마저 먹죠."</p>  
<p>박희진이 꺼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숲을 뒤지던 진우가 수풀을 헤치고 나왔다.</p>  
<p>'이 근처 어딘가인데...'</p>  
<p>어디선가에서 다수의 아이스 베어 기척이 느껴졌다.</p>  
<p>아이스 베어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건 어젯밤부터.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계속 같은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.</p>  
<p>주변을 서성이던 진우의 눈빛이 반짝였다.</p>  
<p>'찾았다!'</p>  
<p>수풀 너머로 수십 개의 암석 동굴이 보였다. 그리고 그 동굴 하나마다 한 마리 이상의 기척이 감지됐다.</p>  
<p>감각을 활용할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지금도 눈앞에서 아이스 베어들이 동굴에 들어가거나 동굴에서 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대략잡아 그 숫자만 30 이상.</p>  
<p>그야말로 곰밭이었다.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슥 올라갔다.</p>  
<p>일부러 혼자 와서 주변에 보는 눈도 없었다.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을 써 보기 딱 좋은 상황.</p>  
<p>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'나와.'</p>  
<p>속으로 그림자들을 호출하자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소리 없이 주위를 에워쌌다.</p>  
<p>"너희 첫 출동인 거 알지?"</p>  
<p>대부분의 인상이 첫 대면에서 결정되듯, 첫 출동에서 너희들의 인상이 결정될 거라 이거다.</p>  
<p>'...'</p>  
<p>'...'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이 서 있었다.</p>  
<p>좋아.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킁킁.</p>  
<p>진우의 냄새를 맡은 아이스 베어들이 하나씩 동굴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'저쪽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.'</p>  
<p>진우는 아이스 베어들을 가리켰다.</p>  
<p>"가라."</p>  
<p>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림자 병사들이 미끄러지듯 달려 나갔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